(2) 송익필의 가족 관계

강민우: 아버지 송사련과 안당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말씀해 주세요.

송익필: 안당은 도학 정치의 종주인 조광조와 김안국(金安國) 등을 추천하고 현량과를 실시합니다. 그의 자식들은 모두 총명하여 아들 안처금(安處謹)·안처겸(安處謙)·안처함(安處誠)이 일시에 현량과 출신이 됩니다. 기묘사화로 조광조의 도학 정치가 좌절되자 그를 지지하던 안당이 파직되고, 이에 불만을 품은 안당의 아들 안처겸이 반대 세력인 남곤·심정 등을 비판합니다.

강민우: 현량과(賢良科)는 조선시대 중종 때 조광조가 건의하여 실시한 인재 추천제도입니다. 학문과 덕행, 재주가 뛰어난 인재를 천거하게 하여 임금이 직접 면접으로 선발하여 관료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이듬해 현량과는 폐지되지만, 훗날 과거 급제자가 아니더라도 학문과 덕망으로 사람을 천거하는 산림 등의 기용으로 나타납니다.

송익필: 아버지 송사련은 안당의 여러 아들들이 친형제처럼 대하고 집안일을 맡기는 등 많은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나 출세욕으로 그의 처남인 정상과 안처겸 형제를 고발하여 '안처겸의 옥사' 또는 '신사무옥'을 일으킵니다. 그 공으로 송사련은 당상절충이 되고 시위 호종으로 지내다가 80이 넘어 죽습니다. 이로써 송사련의 여러 아들은 사대부 집안과 혼인하게 되고, 딸은 임금의 친족에게 출가하는 등 집안이 영화를 누립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송사련은 총명하고 재주가 있었으나, 외할머니 감정이 첩의 소생인 서자도 아니고 계집종과의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신분적 한계를 겪어야 했을 듯합니다.

강민우: 사림의 은인이요 보호자였던 안당 일가가 멸문의 화를 당하게 되니, 송사련 일가는 자연 사림의 증오 대상이 되었군요.

송익필: 훈구세력이 주도하던 정계도 문정왕후가 죽자(1565) 붕괴되고, 사림들이 정계를 장악하자 사화에 희생된 인물들을 복권합니다. 이로써 1566년 안당에게 직첩이 주어졌고, 1575년에는 '정민'이라는 시호가 주어집니다. '시호'는 벼슬한 사람이나 관직에 있던 선비들이 죽은 뒤에 그 행적에 따라 임금으로부터 받은 이름을 말합니다.

강민우: 송사련의 아들 인필(仁弼)·부필(富弼)·익필(翼弼)·한필(翰弼)은 모두 걸출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선생님과 아우 한필이 특히 뛰어났다지요.

송익필: 저는 7~8세에 이미 글로써 남을 놀라게 하였고, 성장하여서는 아우 한필과 더불어 소과에 합격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대과에 응하자, 사관 이해수가 신분문제를 제기하여 탈락시킵니다. 이에 저는 고양 구봉산 아래 은거하여 후진 양성에 전력하여 김장생 등을 기르며, 특별한 사승이 없이 독학으로 학문을 이룹니다. 이에 사람들이 저를 구봉선생이라 불렀습니다.

강민우: 선생님은 사변적인 이기론보다 실천궁행을 통하여 본원을 세우려는 예학에 힘을 썼

다지요. 토정비결을 지으신 이지함(李之菡) 같은 분도 선생님을 통하여 학문을 이루려고 하였고, 그의 제자들에게 동료로 지내도록 했다지요. 선생님의 주변 인물로는 이이·성혼·정철·이산해·서기·조헌·김장생 등이 있습니다.

송익필: 정철과 이산해는 당대의 재상이었으나, 모두 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피신시켜 보호해 준 분들입니다. 제가 동인에게 박해를 받은 것은 정철과 친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서기(徐起)는 같은 서얼 출신의 학자로서, 저의 지략이 제갈량보다 뛰어나다고 칭찬합니다. 조헌(趙憲)은 저를 당대의 장수가 될 만한 훌륭한 인재로 천거합니다. 김장생은 13세에 저에게 와서 『근사록(近思錄)』을 배워 학문의 기초를 닦습니다. 특히 예학은 자신뿐만 아니라 두 아들 김집(金集)과 김반(金槃)을 모두 저에게 수학시켜 기호예학의 종장이 됩니다.

강민우: 『근사록』은 남송의 주희와 여조겸(呂祖謙)이 함께 편찬한 것으로 송대(宋代) 성리학의 대표적인 저작입니다. 이 책은 북송 시대 대표적 사상가인 주돈이·장재·정호·정이의 저술과 어록(語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14분야로 나누어 집대성한 것으로 정주학의 입문서입니다. 일찍이 주자는 "사자(四子: 논어·맹자·대학·중용)는 육경(六經: 시경·서경·역경·춘추·주례·예기)에 오르는 사다리요, 『근사록』은 사자의 학문에 오르는 사다리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은 이이 사후에, 학문과 경세 등 실제로 기호학파의 종장에 임함으로써 서인의 주모자로 지목되었지요.

송익필: 이에 이발·백유양 등 동인의 원한을 사니, 이들은 안당의 서자 아들 안정란을 통하여 신분 문제를 제소하게 하여 저의 신분을 다시 천민으로 되돌립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처한 가족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저는 정철·이산해 등의 보호를 받아 목숨을 보전합니다.